

일제가 왜곡·군사정부선 축소... 잊혀진 거국적 항일투쟁

조선총독부 자료 그대로... 전국적 독립운동 지역 운동으로 축소
서훈자 발굴·유적 복원... 체계적 조사·연구 100주년 플랜 나서야

일제 강점기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독립운동이자 민족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거국적인 항일투쟁임에도 굴곡진 역사 속에 9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그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여곡절의 역사, 위상 재정립 필요=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은 교육청 차원의 소규모 지역 행사로 치러지다가 지난해야 정부 주관으로 열리게 됐다. 이는 그동안 일제가 식민 통치를 위해 그 역사를 끊임없이 축소·왜곡하며 조작한 것은 물론, '나주에서 촉발되고 광주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권 성향에 따라 굴절되거나 억압당해 왔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은 물론, 지역에서도 그 역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지난 5~8월 광주 초·중·고생 3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9.2%만이 기념일을 알고 있었다. 광주에서 조직적으로 학생 독립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도 45.4%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 초등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참여 학교를 194개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인용한 잘못된 기록으로, 광주시교육청 조사 결과 320여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광범위한 정부 학술조사를 통해 교과서에 학생 독립운동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학생독립운동에는 전국 5만4000여 명이 참여해 1600여명이 일본 경·검에 붙잡혔고, 광주에서만 17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 582명, 무기징역 2330명, 강제 전학 298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 수천 명의 학생이 일제의 탄압을 받았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32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훈자 발굴에 나서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추가된 인원이 75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주의 계열 인사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하다 4년간 옥살이를 한 장재성(광주고보 졸업생) 선생조차 해방 이후 행적을 문제 삼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퇴학자 명단 등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도 공훈을 인정하는 등 서훈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가올 100주년 마스터 플랜 수립 나서야=현재 광주지역 학생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는 1928년 건립된 전남여고 본관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졌다. 광주에서조차 그날의 함성과 숨결을 느끼고 시위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유적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놓인 것이다.

보훈처가 지정한 학생독립운동 사적지는 ▲옛 광주역터(현 동부소방서) ▲광주도교터(현 대인시장 동문다리 입구) ▲4개 학교터(현 광주일고·현 전남여고·전광주농업학교·전 전남사범학교) ▲김기린 문방구터(현 금남공원) 등 7곳이다. 지역 학계와 관련 단체들은 사적지를 비롯해 흥학관 등을 면밀한 고증과 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복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유적지가 모인 광주 구도심에 '학생독립운동 역사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공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광주에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419'와 '518' 시내 버스는 다니고 있으나,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한 '1103' 버스는 없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측은 "버스번호만 놓고 보더라도, 광주시와 정부가 그동안 학생독립운동 발상지 관리와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상징성 차원에서라도 관련 유적지를

연결하는 1103번 버스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협 전남대 연구석좌교수도 "그동안 학생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조사나 학술적 연구가 미진해 320여 개에 이르는 참여학교조차도 자신들의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광주·전남을 넘어 시야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학생 독립운동을 주제로 조사와 연구 및 공헌사업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한독립 만세”... 다시 울린 그날의 함성

광주·전남 곳곳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행사

“대한독립 만세!”

올해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의 폭압에 항거한 그날의 함성을 외치는 재연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독립운동 당시 지역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조선 민족은 쫓겨하라!'고 외친 깃발과 현수막 등을 들고 행진했다.

앞서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주관한 '전국 학생 문화예술 축제' 행사도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졌다. '독립에서 평화로·평화, 교류로 열다'를 주제로 전국 시도 학생과 교사 등 350여명이 광주를 방문해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제일고와 전남여고 등을 방문해 기념탑과 역사관을 둘러봤다.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청소년독립페스티벌에서도 학생독립운동 퍼포먼스와 플래시몹이 펼쳐졌다. 또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 청소년 500여명이 모여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 오를 한민족 청소년이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은?'이라는 주제로 '동북아한민족 청소년 500인 원탁토론'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은 같은 날 보성공설운동



이날엔 국무총리가 3일 광주시 서구 학생독립운동 기념탑에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에서 마라톤대회를 열었고, 충남·북,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각자 청소년 축제 등 각종 기념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에 앞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달 19일 학생독립운동 학술회의와 27일 현장 음악회를 열었고, 시교육청은 90주년 기념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포럼을 진행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1929년 11월 3일 광주서 시작돼 전국·해외로 뻗어나간 학생 주도 항일 시위

■학생독립운동은?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로까지 뻗어나간 학생 주도의 항일 시위다. 1919년 3·1운동, 1926년 6·10만세 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민족독립운동)으로 꼽힌다. 1930년 상해임시정부 국무령 김구 선생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침체된 독립운동을 진작시키고 상해임시정부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한 내용의 편지가 공개(광주일보 2018년 8월 14일 2면)되기도 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비옥한 농토를 가

지고 있는 호남은 타지역에 비해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극심했다. 각종 수탈과 학교에서의 민족차별 교육은 지역 학생들의 분개를 샀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광주 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생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다. 수탈에 이어 민족차별 교육 속에 저항의식을 키워나갔던 학생들의 분노가 터졌다.

운명의 날인 11월 3일은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이었다. 개천절임에도 일왕 메이지의 생일인 명치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념식에서 침묵으로 저항했고,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 이 무렵 통학열차에서의 갈등이 이어져 광주전면에서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의 싸움이 벌어졌고, 광주역으로 확대돼 집단 패싸움으로 발전했다. 교사들의 만류로 학교로 돌아온 광주고보 학생들은 일제에 맞서기로 결정한다.

광주시내에서 항일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 소식은 전국으로 확산했다. 광주에서 타오른 불길은 거침없이 타올라 서울, 개성, 부산, 진주, 청주, 공주, 대전, 홍성, 예산, 조치원, 부여, 전주, 정읍, 고창, 이리, 평양, 신의주, 정주, 선천, 영변, 함흥, 원산, 경성, 대구, 춘천 등에서도 동맹휴교나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전국 320여개 학

교, 5만4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 규모다.

이런 학생들의 시위는 해외까지 확산됐다. 북한도와 서간도를 비롯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도 유학생들이 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연설을 했다. 연해주와 미주에서도 신문에 학생독립운동 소식이 실리기도 했다.

11·3학생독립운동은 학생들이 전면에서 나서 민족 독립의 의지를 천명한 항일운동으로, 나아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연결불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1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17 12 point

1 3 0 7 5 8 4 9 2
116 10 point

2 4 6 3 7 1 2 8 0
115 8 point

4 6 2 8 1 0 9 7 3
113 6 point

2 7 0 2 1 3 0 0 2
112 5 point

0 1 1 7 9 0 0 0 0
11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철제시공 모습

스틸방수시공 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